



"봄별은 며느리를 짖고 가을별은 딸을 짖인다"

뜻: 다가온 봄 햇볕 아래에서는 며느리를 일하게 하고, 부드러운 가을 햇볕 아래에서는 딸을 쉬게 한다는 말로, 며느리보다 자기 딸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뜻해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차별 · 편애 · 관계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봄	별	은	↓	며	느	리	를	↓	짖	이	고
가	을	별	은	↓	딸	을	↓	짖	인	다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봄	별	은	↓	며	느	리	를	↓	짖	이	고
가	을	별	은	↓	딸	을	↓	짖	인	다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벉ㅅㅇ] [모ㄴㄹㄹ] [썩ㅇㄱ] [ㄱㅇㅅㅇ] [ㅍㅇ] [썩ㅇㅅ]

웹에서 보기

